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화재 이후 건축적 개입
- 피해 주민의 장소성 회복을 중심으로 -

Architectural Intervention After a Fire
- Focused on the Restoration of Residents' sense of Place -

○이 현 주* 윤 현 철**
Lee, Hyeon-Ju Youn, Hyun-Chu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architecture in restoring residents' sense of place and place attachment after a disaster. Disasters not only destroy physical spaces but also sever the emotional bonds and shared memories of a community. Therefore, architectural intervention must go beyond simply rebuilding structures; it should foster psychological recovery and community rebuilding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This paper examines various disaster cases to show how architecture can help overcome loss and build a new place identity.

키워드 : 장소애착, 장소성, 화재, 건축적 개입
Keywords : Place Attachment, Placeness, Fire, Architectural Interven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장소란 개인이나 단체의 경험이 투영되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식되는 공간을 의미한다(Canter, 1997). 화재는 단순히 건물과 재산을 파괴하는 물리적 재난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과 정서가 깃든 장소를 소멸시키는 사회적 재난이다. 재난은 인간에게 예측 불가능한 상실을 가져다준다. 특히 삶의 터전이 파괴될 때, 피해주민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터전과 공동체의 장소성은 한 순간에 사라진다.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와의 유대가 깃든 장소다. 재난은 이러한 장소애착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키며, 피해주민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상실감과 고립감을 안겨준다.

따라서 재난 이후의 복구는 단순히 파괴된 건물을 재건하는 물리적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장소와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각 장소에는 장소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장소에 대한 인식 정도와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장소애착이 존재한다(Altman & Low, 1992). 이에 따르는 진정한 의미의 재건은 상실된 장소애착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공동체를 치유하며, 주민들이 다시금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도록 돕는 총체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적 개입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건축은 더 이상 재난에 취약하지 않은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공동체의 장소성을 구축하는 매개체가 된다.

본 연구는 재난 이후의 건축적 개입이 어떻게 주민들의 장소애착을 회복시키는지를 살펴본다. 두 사례는 재난의 원인과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피해주민들의 정서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 건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재난을 겪은 공동체를 위한 미래의 건축과 도시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탐구하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선행연구 선정 기준은 '화재', '건축적 개입', '장소성', '장소애착'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관련 논문 두 편을 연구했다.

국외 사례 선정 기준은 주거 지역에 대규모 피해를 남긴 대형 재난으로, 재건 과정에서 건축적 개입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 경북대 건축학부 학사과정
** 경북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nagoris@knu.ac.kr)

2. 사례분석

2.1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 복구는 피해주민들의 장소애착이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 사례이다.

화재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그렌펠 타워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의 장소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건물의 철거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고통과 기억을 지우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일부는 타워의 흔적을 보존한 채 추모 공간을 조성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상실된 생활 공간에 대한 장소애착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거주지에 대한 애정만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기리고자 하는 더 깊은 윤리적·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그렌펠 타워는 피해 주민들에게 개인적 애착과 집단적 기억이 교차하는 비극적 역사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1. 그랜펠타워 화재

2.2 미국 콜로라도 포마일 캐년 산불

미국 콜로라도 포마일 캐년 산불** 이후의 재건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재건위원회와 지역 건축가들은 일방적인 설계안을 제시하는 대신, 워크숍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러한 참여적 디자인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새로운 집의 디자인, 재료 선택, 그리고 공공 공간 배치에 이르기까지 재건의 주체로 나섰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이 상실감을 극복하고 스스로 통제감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심리적 치유 과정이다. 또한 Habitat for Humanity*** 같은 비영리 단체의 지원은 공동체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새롭게 건설된 주택들은 과거의 취약했던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회복탄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화재 안전에 초점을 맞춘 건축 기술과 재료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새로운 공간에 대한 장소 애착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다.

그림2. 콜로라도 포마일 캐년 산불

3. 결론

본 연구는 재난 이후의 건축적 개입이 단순히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피해주민들의 정서적, 사회적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렌펠 타워와 콜로라도 산불 사례는 재난이 공동체의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삶의 터전에 대한 깊은 정서적 유대인 장소애착을 단절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콜로라도의 재건 프로젝트는 파괴된 장소성을 되살리고 장소애착을 재구축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민 주도적 디자인을 통해 개인의 상실감을 공동체의 회복력으로 전환시키고 재난에 강한 건축적 기준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장소를 창조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그렌펠 타워는 물리적 재건 이전에 상실된 장소에 대한 기억과 공동체의 연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다.

참고문헌

1. Altman, I. & S. M. Low(1992),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New York.
2. Canter, D.(1997), “The facets of place. In G.T. Moore & R.W. Marans(Eds),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 4. Toward the integration of theory, methods, research, and utilization, New York: Plenum, pp.109-407.

*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의 24층짜리 고층 아파트인 그렌펠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화재는 냉장고의 전기적 결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연성 외장재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냈다.

** 2010년 9월 6일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시 서쪽 외곽에서 포마일 캐년 산불이 발생했다. 이 화재는 주택가 전선에서 시작되었고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산불은 169채의 주택을 파괴했다. 당시 콜로라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도시와 산림이 만나는 지역의 주택들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드러냈다. 이 사건은 이후 화재에 강한 건축과 공동체 재건 노력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비영리 국제단체이다. 1976년 밀라드 풀러와 린다 풀러 부부가 설립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움을 받는 가족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집을 짓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